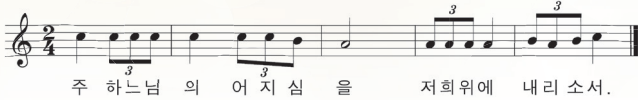


설

제1독서 민수기 6, 22~27

화답송 시편 90(89), 2와 4. 5~6. 12~13. 14와 16 (©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1.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2.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3.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 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보서 4, 13~15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 2

◎ 알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음 루카 12, 35~40

영성체송 히브 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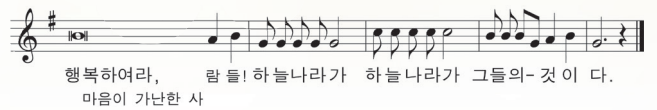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제1독서 스바니아 예언서 2, 3; 3, 12~13

화답송 시편 146(145), 6ㄷ~7. 8~9ㄱ. 9ㄴㄷ~10ㄱㄴ (© 마태 5, 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2.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3.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 26~31

복음환호송 마태 5, 12

◎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마태오 5, 1~12ㄴ

영성체송 시편 31(30), 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스마트폰에서 **교구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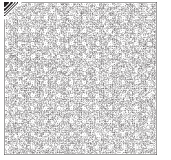
QR코드를 사용하면 가톨릭부산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http://www.catholicbusan.or.kr>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미사 중에 2차 헌금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된 2차 헌금은 국제 카리타스 164개 회원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 곳곳의 지진과 홍수, 식량난과 분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지원되었습니다.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이 아닌 '복음'의 실천



갈릴래아는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곳 갈릴래아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인 갈릴래아인들은 동족에게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 하셨습니다. 그때 갈릴래아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 군중들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의 복음인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의 가르침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강령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인 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참 행복의 가르침은, '의무'와 구별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복음을 살고, 실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된 노력이 필요하며, 구속력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분을 알고 깨달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혼의 힘에 의한 완성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참 행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멩애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이로써 복음을 생활화하며 실천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혹, 필요 이상으로 부유함에 집착하지는 않는지요? 허영과 오만으로 다른 이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는지요? 자신의

많은 시간을 짜증과 분노로 쓰지는 않는지요? 정의를 비웃지는 않는지요? 흑색 거짓을 선동하지는 않는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유혹에 오히려 안주하며, 행복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받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무에만 그치지 말고, 참된 복음을 실천하여 완성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형근
블라시오 신부
인보성당 주임

지금까지

촛불의 비밀

우리 성당 성모상 앞에는 촛불을 켜두는 곳이 있습니다. 간장종지 만한 초에 불을 켜두면 초는 이내 다 타곤 하는데, 바람이라도 거센 날에는 더 빨리 타더군요. 촛불이란 결국엔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촛불이 꺼지면 누군가 다른 초에 또 불을 붙여, 성모상 앞에는 기원을 담은 촛불이 늘 그렇게 타고르고 있다지요.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30(월)~31(화)
김형근 신부(인보성당 주임)
2.1(수)~4(토)
박상훈 신부(무거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사랑이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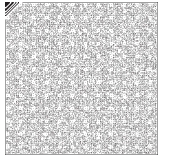
월~목 12:15~14:00
1.31(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좌동성당 어르신 성경대학 봉사자
2.2(목) 퀴즈포스트 '성경에서 온 그대'
루카복음 8, 9장 예수님의 구마 기적
출연 : 김종이 신부(남산성당 부주임)

신부들의 수다 2.4(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안락 부주임), 김병희 신부(호계 보좌), 김수환 신부(청소년사목국 차장)

나는 왜 매일 성당을 향해 종종걸음을 치는가?

정혜원 세실리아



1985년 12월 21일에 세례성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미사보를 쓸 수 있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있어도 잘 쓰지 않는 그 하얀 머릿수건이 그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신비감마저 느꼈다. '예비신자'라는 꼬리표 없이 '신자'의 자격으로 영성체 대열에 선다는 점도 미사의 매력이었다. 이처럼 그 무렵엔 미사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이런 외형적인 매력에 끌려서 미사에 꼬박꼬박 참례했던 것 같다.

그리고 몇 년 후엔 열정이 식어 '냉담자' 였던 시기도 있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외적 요인이 더 이상 미사의 매력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왜 맨날 똑같지?"라는 의문이 미사 내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미사가 '뜰에 박힌 듯이' 보였고, 그 똑같은 미사를 계속 바치는 이유가 궁금했

다. 급기야 나는 "미사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라는 말을 신부님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끈거리지만, 미사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답답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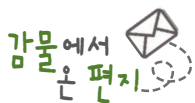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주님의 손에 의해 다른 땅에 심어지듯,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흥기 몬시뇰께로부터 미사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미사에 숨어있는 그 엄청난 신비에 끌리기 시작했다. 말씀 안에, 성체와 성혈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미사 참례에 마음을 다하게 되었다. 사제의 손에 의해 성체와 성혈이 되고, 2,000년 전의 십자가 제사가 지금 눈앞에서 재현되는 미사는 자연스럽게 나의 중요한 일과

가 되었다.

그렇게 미사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택하면서 거의 매일 종종걸음을 치게 되었다. 취미로 꼭 배우고 싶었던 그것도,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도 미사와의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미사 시간을 맞추려 달려간 적도 많았고, 도중에 소나기를 만난 적도 있었고, 병원 신세를 지고나온 다음날 1년 중 가장 긴 부활성야 미사에 참례했다가 거의 초주검이 되기도 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이 세상과 저세상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미사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봉헌되는 그 거룩한 제사에 참례하려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성가정성당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톨릭부산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atholicbusan
www.twitter.com/catholicbusan



겨울 단상

도시에서는 1월 1일부터 새해를 시작하지만, 농촌에서는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풀려야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태양력에 맞추고서는 자연의 리듬을 감지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겨울의 한가운데인 이 1월, 절기로 매서운 북풍한설을 품고 있는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그저 춥기만 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된 때는 아닙니다. 아침이면 온천지를 하얗게 장식하는 서리가 내린 이 감물생태학습관 발에서는 아직도 마늘, 양파, 대파, 쪽파, 가을 상추, 겨울초, 밀, 민트에다가 봄동 할 배추가 자라고 있고, 논에는 미나리와 보리가 이 계절에도 숨 쉬고 자라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추위 '덕분에' 속이 채워지고 맛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경상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어진 눈이 겨울이면 몇 차례 감물생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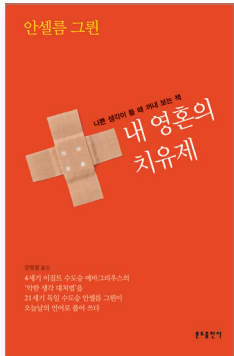
습관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쯤이면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을 녹인 물에 볍씨를 담그기도 합니다. 한 해 매서운 추위에도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입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더워가 되었던 추위가 되었던 직접 경험하여 몸에 새기지 않고서는 자연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인터넷 상에는 요긴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삶의 실체는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뒤늦게 문제에 맞닥뜨리고 나면 판판이 나가떨어지는 이유는 실제 없는 정보를 과신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알기 위해 무조건 귀농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수시로 이 자연을 찾을 때 우리가 잊었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처음에는 어렵듯이, 나중에는 서서히 머리보다 몸이 먼저 느끼고 편안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신념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또 그 자연을 신앙 안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감물생태학습관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준한 신부(감물생태학습관 관장) jhkim7291@gmail.com



2월의
도서, 영화

내 영혼의 치유제

▶ 안셀름 그륀 지음 ▶ 김영철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9,000원



4세기 이집트 수도승 에바그리우스의 '악한 생각 대처법'을 21세기 독일 수도승 안셀름 그륀이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 쓴 책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꺼내 보는 책입니다.

다. 에바그리우스의 생각을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오늘날의 말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원수와 형제가 되다

▶ 암브로지오 스프레아피코 지음
▶ 박요한 영식 옮김 ▶ 성서와함께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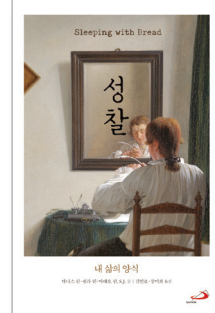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원수와 형제가 되는 세상'을 꿈꾸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참된 화해와 용서의 힘을 얻고, 하느님과 같은 꿈을 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찰

▶ 데니스 린, 실라 린, 마태오 린 지음
▶ 김인호, 장미희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9,000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하루'를 더듬어 펼쳐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경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한국인 최초 투르드프랑스 3,500km를 완주한 희귀암 청년의 이야기

아마추어 보디빌더이자 체육교사를 꿈꾸던 윤혁에게 어느 날, 예고 없이 절망이 찾아온다. 3개월 시한부 희귀암 선고를 받은 윤혁은 2번의 수술과 25차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윤혁은 모든 사이클리스트들의 꿈인 자전거 대회, '투르드프랑스'를 완주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다. 절망의 순간에서 만난 기적 같은 꿈의 길, 생애 가장 소중한 49일의 질주가 시작된다!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 ▶ 관람료 : 주보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나요? 불의는 당연히 받고(發告) 하고 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 용서를 해야 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지요?

구약성경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탈출 21, 24)라는 동태 복수법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구약이 복수를 장려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눈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눈까지만 복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실제,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이가 일흔일곱 갑절로 양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대한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동태 복수법은 이를 반대하는 일종의 복수 제한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루카 11, 13)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의 하느님을 닮는 길이고, (마태 5, 48)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에게

서 오는 용서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 6, 15~16; 18, 23~35) 그렇다고 해서 불의까지 무조건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는 당연히 받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도 잘못을 저지르는 이를 꾸짖고, 말을 듣지 않거든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권고합니다. (마태 18, 15~18; 루카 17, 3; 1코린 5, 13 참조) 이런 일에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카 17, 4) 만약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기도로 하느님께 청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루카 17, 3)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지난 1월 16일(월) 주교좌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1차 교육' 이 봉사자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교육은 소공동체의 의미, 복음 나누기 7단계, 봉사자의 역할과 사명, 소공동체 활성화 사례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선교사목곡(국장 : 장재봉 신부) 주관

용호성당, 소년 브레시디움 창단



1월 14일(토) / 주임 : 임영민 신부
사랑의 샘 Pr. - 단장 박미영 스텔라, 기쁨의 샘 Pr. - 단장 옥경인 올리안나
위로의 샘 Pr. - 단장 김효경 카타리나, 은총의 샘 Pr. - 단장 전복란 비르짓다

오순절평화의 마을, 'My Family'



오순절평화의마을(원장 : 박기흠 신부)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가족관계 형성 강화 프로그램인 'My Family' 사업을 진

행한다. 'My Family' 프로그램은 가족 봉사팀과 노숙인시설 생활인이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가족결연 발대식, 가정 방문 체험, 가족 일상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시설 생활자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자활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고등부 의장단 L.T



지난 1월 13일(금)~15일(일), 20일(금)~22일(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제49차 의장단 Leadership Training' 1차, 2차 교육이 신임 의장단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가 되자' 라는 목표 아래 열린 이번 교육은 하느님과 소통 및 나눔 교리 특강, 포크댄스, 갈래 모임, 십자가 경배, 의장단 수칙 결정 등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사목곡(국장 : 김대성 신부, 담당 : 김수환 신부) 주관



1월 17일(화) 교구청 5층 강당 / 지도 : 장재봉 신부, 회장 : 김종철 레오

예비 신학생 피정

성소국(국장 : 김태형 신부) 주관

1차 - 1월 9일(월)~10일(화) 초등 6학년
2차 - 1월 10일(화)~11일(수) 중등 1학년
3차 - 1월 16일(월)~17일(화) 중등 2학년~고등 1학년 / 푸른나무 교육관



1차



3차



2차

♣ 2일 : 고르벨리오, 라우렌시오, 브루노, 아달발도, 아델로가, 아프로니아노, 요안나 드 레토나, 칸디도, 펠리치아노, 포르투나토, 플로스쿨로, 피르모



성가정성당, 사랑의 연탄 나눔



민락성당(주임 : 김기태 신부, 박정용 신부, 회장 : 민춘식 요한)은 지난해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이자 자비의 희년을 보내면서 특별한 신앙 운동을 펼쳤다. '자비의 통장-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라는 이름으로 펼친 신앙 운동은 미사 참례, 묵주기도, 불우이웃 돕기, 봉사 활동, 본당 공동체를 위한 선행 등의 활동을 했을 때는 수입으로 탈렌트를 입금하고, 그동안 모은 탈렌트를 봉헌하거나 십계명(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 등)을 어겼을 때 등

신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탈렌트를 지출한다.

지난 1년 동안 탈렌트를 많이 모으고, 이웃을 위해 잘 쓴 김송자 아네스 씨 외 10명을 선정하고, 지난 1월 8일(일) 교중 미사 중에 '자비의 통장 시상식'을 열었다.

본당 복음화의 해를 지내고 있는 올해, 많은 본당에서도 '자비의 통장'과 같은 신앙 운동을 본받아, 내적인 힘과 영성을 지닌 본당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성가정성당(주임 : 최현욱 신부, 회장 : 장종표 안드레아)은 지난 1월 14일(토) 빈첸시오회를 주축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신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일동 매축지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400장을 전달했다.

본당 분과 위원장 연수

회장단, 총무	2. 5(일)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가정분과	2.12(일) 교구청 5층 강당
선교분과	2.18(토) 교구청 5층 강당
교육분과	2.19(일) 교구청 5층 강당
전례분과	2.25(토) 교구청 5층 강당
구역분과	2.26(일) 교구청 5층 강당
노인분과	3. 4(토) 교구청 5층 강당
홍보분과	3.12(일) 교구청 5층 강당
사회복지분과	3.18(토) 미정
청소년분과	4. 2(일) 푸른나무 교육관

부산교구 공익요지 하늘 공원

†미사: †서틀버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오전 11시 3층 경당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새사제 미사

· 2,3(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5층 강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성소분과위원 연수(교육 및 미사)

· 2,19(일) 10:00~16:00 / 회비 : 1만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 교육관
 대상 :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 및 성소후원회
 신청 : ~2,14(금) / 문의 : 629-8760~2(성소국)

제8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3.11~4.8 매주 토 15:00~21:00 (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1.16(월)~2.28(화),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 /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성요셉아버지학교)

예비신학교 등록 안내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2017학년 기준) / 등록방법 : 성소국 홈페이지 (<http://sungso.cath.kr>) 및 교구공문 참조
 등록비 : 5만원 / 등록마감 : 2.28(화)
 예신입학식 : 3.12(일) 13:30 신학대학
 문의 : 629-8760~2(성소국)

기간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부문 및 분량(200자 원고지 기준)

시, 시조, 동시 (10편 이상) 평론 (80매 내외, 2편 이상)
 소설 (70매 내외, 2편 이상) 수필 (15매 내외, 3편 이상)
 희곡 (80매 내외, 2편 이상) 동화 (30매 내외, 2편 이상)

■ 접수 마감 및 보낼 곳

보통 마감일 : 2월 20일(월) * 수시 모집
 보낼 곳 : gaserol@hanmail.net 문의 : 010-3845-8599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은 문단의 권위있는 문필가로 함.
 - 당선작은 「부산가톨릭문학」에 발표하고 신인상 수여.

■ 참고사항

-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성명(반드시 실명), 원고 끝에는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
 -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음.
 - 본지 출신의 작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원 자격 및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주) 씨피여행사
 1. 5/1 스페인 성지순례 10일 350만원
 2. 5/2 이스라엘 독일남부 13일 475만원
 3. 5/22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75만원
 4. 6/12 발칸 성지순례 13일 415만원

가톨릭센터(본사)담당
010-3837-6434

나가사키 성지순례 대마도·일본·독도
253-5887, 010-8511-2442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프란치스코)

샬트르생바오로 수녀회대구관구 백합식품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농산물로 만드는 우리의 정맛
 수녀님 매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대추, 대추즙
 대구 053)257-1771 서울 02)2202-8392
 공평(자민) 053)857-2037 www.spfood.co.kr

소중한눈 안과
 라식/라섹/백내장/노안교정/안내렌즈
 대표원장 김승기(요셉), 신승혜(마리아)
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출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임페리얼타워 14층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 관 현(시몬) 최 상 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국내 성지순례 버스
 리무진, 45인승, 35인승, 25인승
 성지순례 코스 상담 환영
결혼식 웨딩 버스 대절
미래고속관광(주)
055-333-6300, 010-9809-6300

honre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아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청,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 (총회사 입구)

거 제 주 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점포: 632-0696, 집: 416-9168
 휴대폰: 010-9331-6633
 진시정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로만 안쪽 화장실 옆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

6 ·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 3일 : 라우렌시오, 레메디오, 루피치노, 마르가리타, 베르부르가, 베를린다, 블라시오, 심프로니오, 안스카리오, 이냐시오, 이아, 첼라이나, 첼레리나, 첼레리노, 티지데, 펠릭스, 필립보, 히폴리토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1.30(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성음악사랑153후원회를 위한 감사미사

· 1.31(화) 19:30 · 양정성당
주례 : 임석수 신부 / 연주 : 아뉴스테이합창단
문의 : 010-8545-6504

울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2.1(수) 14:00 · 복산성당 소성전
지도사제 : 이주홍 신부 / 문의 : (052)201-6509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금철야 킷토요 신심미사

철야 : 2.3(금) 21: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박상희 신부(파티마평화의성당 담당)
신심 : 2.4(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2.7(화) 13:00~15:00 (14: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 010-2428-5785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동문) 정기총회

· 2.4(토) 16:00 총회, 17:00 파견미사,
18:00 나눔 및 식사 / 문의 : 462-0334
·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신학원 대강당

시각장애인선교회, 큰빛 직원 구함

사회복지사, PC, 운전 가능자(일~금 근무)
마감 : 2.5(일) / 문의 : 464-3909(사회복지법인 큰빛)

음악교육원 오카리나 마스터클래스 개강

각 분기별 12주간씩
1분기 : 2.5(화)부터 / 2분기 : 5.2(화)부터
3분기 : 8.1(화)부터 / 4분기 : 11.7(화)부터
지도 : 옥준 교수 / 문의 : 517-8241, 2

2017년 세계울트라야 참가단 모집

· 4.28(금)~5.11(목) · 프랑스(루르드), 스페인
(산티아고-도보1일), 포르투갈(파티마) 순례
순례경비 : 385만원 / 문의 : 010-3837-6434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30(월) 전포성당 - 설연휴 휴회
· 2.1(수) 20:00 울산 영성의집
- 수요치유기도회
· 2.1(수) 11:00~16:00 / 점심 제공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35 원동IC
09:30 부산역, 동래전철역 09:40 온천장 전철역
- 교구 철야기도회(신심미사)
· 2.3(금) 23:00~다음날 04:00
- 교구 성령목사회
제423차(일반) : 2.3(금) 11:00~5(일) 17:30
제424차(젊은이) : 2.10(금) 19:30~12(일) 17:30
제425차(일반) : 2.17(금) 11:00~19(일) 17:30
회비 : 10만원(일반 교재비 별도 3천원) / 당일 지참
10:00(일반), 18:30(젊은이)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신심미사)
· 2.2(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2.3(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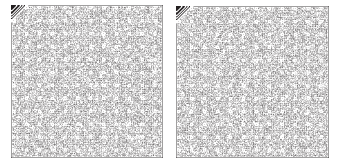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첫금요일예수성심신심미사)**

· 2.3(금) 14:00 · 남천성당 소성전
문의 : (02)379-8091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2.3(금) 18:00~5(일) 15:00 / 숙식 제공
문의(010-3563-8864) : 동래(11:00) 전철 3번 출구
-언양(11:40) 톨게이트 고속버스정류장
문의(010-3798-5418) : 부산역(10:30)-
김해시청(11:10) 건너편 정류장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5(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5(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읍과 함께하는 침묵피정

· 2.10(금)~12(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분원
문의 : 010-9319-1690(루카 수녀)

중고생학부모를 위한 무료강좌

흔들리는 10대를 위한 "김용은 수녀"의 부모코칭
· 2.7(화) 10:00~11:30 (사전전화접수)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마리아 학교 기초 과정 수강자 모집

· 2.8~4.26 매주 수요일 14:00~17:00(12주)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6만원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이신 성심)
내용 : 성경(교부, 역사, 전례) 속의 마리아, 교회
현장 8장, 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문의 : 010-9620-4820, 634-4845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7차)

· 3.25(토)~26(일) · 영성의 집
문의 : (055)332-7004, 010-3847-2796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3.9(화)~17(수) / 365만원, 선착순 20명
· 이스라엘 / 대한항공, 부산 출발
- 4.17(월)~29(토) / 특별가 : 390만원
· 서유럽 순례(로마, 루르드, 파리, 바티)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성가정속으로 gogogo!!!

· 7.21(금)~8.13(일)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 (062)373-0942, 다음 카페 참조(cafe.daum.net/youth1318)

인간존중
생명사랑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

■ 모 집 2월 14일(화)까지
■ 개 강 3월 8일(수), 주 5일(월~금) 하루 4시간 수업
■ 대 상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 모 집 510-0866, yangwj@cup.ac.kr

메 리 놀 병 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설

대상 : 말기 암환자의 통증·증상완화
재능기부 환원 : 테라피, 음악(악기,노래),
미술(공예), 원예(꽃꽂이), 마사지, 다도 등
문의 : 461-2471, 2709(완화의료센터)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무료 대관 신청
미술발갤러리

대상 : 작가 지망생, 아마추어 시각예술 단체 및 개인
장소 : 마음발갤러리 / 기간 : 수시
일상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께
전시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통영산골 코스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연어샐러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원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주)석경
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재영(베가), 박승국(라자로)
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술품에 전문
반광옥(바로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빌딩 맞은편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네스)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합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눈시원안과
이 현 석(분도)
전. 교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010-8108-2110
상광회소 옆 이법병원 3층